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김 순 자(제주학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이 글은 제주의 전통 문화의 하나인 갈옷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전승 지식을 살펴보고, 이를 지속가능한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갈옷 발굴과 육성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한 조사 결과물 가운데 일부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10개 읍면 등 12개 지역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제주시 동지역 3개 마을, 서귀포시 동지역 2개 마을, 애월읍 2개 마을, 한림읍 2개 마을, 한경면 2개 마을, 대정읍 2개 마을, 안덕면 2개 마을, 남원읍 2개 마을, 표선면 2개 마을, 성산읍 4개 마을, 구좌읍 2개 마을, 조천읍 2개 마을 등 27개 지점에서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는 갈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거나 옷에 감물을 들였던 경험자, 그리고 입었던 사람들이다.

조사 대상은 여자 40명, 남자 2명이다. 많은 여성을 주제보자로 한 것은 갈옷 문화가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다 남성 제보자보다 여성 제보자들이 생활 속에서 갈옷을 만들거나 입었던 경험이 많아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또한 이들 갈옷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해 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결과, 이들이 처음 갈옷을 입은 시기는 대부분 결혼 즈음이다. 20대에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제보자들의 갈옷 관련 구술을 통하여 1940~1960년대 전후 시기인 전통 사회의 갈옷 문화 양상을 엿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갈옷'의 흐름과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조사는 구술 채록을 위하여 개발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진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에 완성하였다. 조사는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6명의 조사원들이 직접 해당 마을을 찾아가 대면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은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을 고루 분포하도록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 지점을 나눈 것은 제주 전역의 갈옷 문화를 살핌은 물론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조사는 녹음기와 캠코더를 활용하였고, 조사된 내용은 한글전사를 한 후에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번 구술 채록에서는 갈옷의 △명칭 △종류 △인식 △착용 환경 △유의할 점 △감물 들이기 △기타 등 갈옷 관련 문화 전반이다. 오늘 발표에서는 △조사 경위와 과정 △갈옷의 명칭 △갈옷 종류 △갈옷에 대한 인식 △착용 상황 △유의점 등을 구술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감물 들이기'와 관련한 감 종류, 도구, 준비하기, 물들이기(감과 옷 준비-물들이기-널기-바래기) 과정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한다.

1.1. 조사 지역, 제보자, 연구진

1.1.1. 조사 지역과 제보자

조사는 제주도내 시읍면 12개 지역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는 한 마을당 1~4명으로 모두 42명이다. 제보자는 90대 7명, 80대 26명, 70대 8명, 60대 1명이다. 성별로는 여자 40명, 남자 2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지역과 제보자¹⁾

연번	조사 지역	조사 마을	제보자	나이 ²⁾	연번	조사지역	조사마을	제보자	나이
1	제주시	삼양2동	강○숙	94	22	안덕면	감산리	강○선	78
2			강○향	80	23	서귀포시	서귀동	임○은	90
3		화북2동	백○성	89	24		법환동	현○열	79
4	애월읍	삼도2동	강○자	81	25	남원읍	신흥2리	김○생	99
5		광령2리	박○선	77	26		태흥2리	양○화	85
6		금성리	이○자	이○자	83	27	표선면	가시리	오○중
7	홍○균			84	28	안○생			97
8	양○자			81	29	하천리			강○순
9	한림읍	명월리	장○선	84	30	성산읍	오조리	강○순	86
10			양○자	81	31			현○홍	88
11			양○자	81	32			고○자	83
12	한경면	수원리	김○춘	89	33	고성리	강○춘	78	
13		낙천리	김○평	90	34		이○자	77	
14		용수리	양○월	89	35		난산리	고○덕	85
15	대정읍	일과1리	이○희	91	36	구좌읍	신산리	강○선	86
16			고○자	79	37		덕천리	이○숙	84
17			신평리	이○자	81		38	월정리	현○래
18	안덕면	사계리	허○자	66	39	조천읍	와산리	김○례	89
19			천○선	76	40		북촌리	이○찬	78
20			유○자	82	41			백○옥	81
21		감산리	김○현	83	42			변○여	85

조사 지역은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을 나눠 조사하였다. 12개 지역의 갈옷 문화는 물론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지점을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중산간 마을: 화북2동, 광령2리, 명월리, 낙천리, 신평리, 감산리, 서귀동, 신흥2리, 가시리, 난산리, 덕천리, 와산리

△해안 마을: 삼도2동, 삼양2동, 금성리, 수원리, 용수리, 일과1리, 사계리, 천지동, 법환동, 태흥2리, 하천리, 오조리, 고성리, 신산리, 월정리, 북촌리

1.1.2. 연구진과 조사원

제주 갈옷 문화와 관련한 구술 채록을 위하여 연구진 8명, 자문위원 1명, 조사원 6명 등 15명

1) 조사 지역과 제보자는 제주도 동지역을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정리하였다.

2) 여기에서 나이는 2023년 현 시점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다.

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질문지 작성과 함께 조사원들이 채록하고 전사한 구술자료 확인 등의 작업을 하였다. 조사원은 6명으로 2인 1조로 1조당 4개 지역에서 2개 마을 이상에서 갈옷 관련 구술 채록을 한 후에 전사를 하였다. 공동연구원 2명은 조사원들과 함께 직접 구술 채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사에 앞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쳤다.

〈표 2〉 연구진·조사원

연번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연구진				
1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질문지 개발, 검토, 조사원 교육, 구술 확인, 원고작성 등	연구책임
2	조정현		질문지 개발, 검토	
3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질문지 개발, 검토 등	공동연구
4	홍희숙	제주대학교	질문지 개발, 검토	
5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문헌 자료 조사	
6	고은솔		문헌 자료 조사, 소장 유물 촬영 및 실측 등	
7	현혜림		구술 채록 및 전사 확인	
8	송정희		질문지 개발, 구술 채록 및 확인, 소장유물 촬영 및 실측 등	
자문위원				
1	고부자	전 단국대 교수	자문	
조사원				
1	김보향	제주대학교	구술 채록 및 전사, 확인	
2	박진향	제주대학교	구술 채록 및 전사	
3	강경민	제주대학교		
4	고선희	제주대학교		
5	양인정	제주대학교		
6	권지영	제주대학교		

1.2. 조사 및 전사

조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12개 시읍면 지역 27개 마을에서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갈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그들의 생활 언어인 제주어로 채록하였다.

전사는 1차 전사, 2차 확인 과정을 거쳤다. 1차 전사는 조사 시점에 시작하여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2차 확인 작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녹음기와 캠코더를 활용하였다. 구술 채록은 갈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생활 언어인 제주어로 채록하고, 전사하였다. 전사는 한글전사를 원칙으로 하고, 표기는 제주어표기법에 따랐다. 조사 분량은 총 37시간 57분 44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갈옷 명칭 △갈옷 종류 △갈옷에 대한 인식 △감 종류 △감물들이기 전 과정 △착용 상황 △유의점 △기타 감 활용 등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양상,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지혜와 지식 체계다.

2.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2.1 명칭

2.1.1. 갈옷/감옷/감든옷

그동안 제주에서는 ‘감(뭍)을 들인 옷’을 일반적으로 ‘갈옷’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구술 채록을 통해 제보자들은 ‘갈옷’이라는 명칭과 함께 ‘감옷’ 또는 ‘감든옷’이라고도 하였다. ‘갈옷’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들은 제주 전역에서 사용하는 ‘갈옷’보다는 ‘감옷’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³⁾ ‘감든옷’은 제주시 서쪽 지역인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감든옷’과 함께 ‘감든중의’, ‘감든적삼’처럼 옷 이름에서도 ‘감든옷’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감(뭍)을 들인 옷’의 의미로 ‘감든옷’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 등거리가 인제 조끼주게. 이거는 으름 때에 집이 오라근에 그거 감옷 벗어뒤근에 밥 먹을 때. 었은 집이 었어 그거. 미시거 천이 었기 때문에 옷을 멘들 것이 었거든. 이 **감든옷은** 문딱 미녕이어 난.(용수리, 양○월)

(2) 이 **갈옷이렌** 흰 거는 빨기도 좋고 입기도 간편하고 더럽지도 않고, 더러우면 그날 빨아서도 또 입을 수도 있고. 이게 다목적으로 아주 좋은 거요.(감산리, 김○헌)

(3)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뒷산디 모르고 이디 촌에 오란 일허멍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서 뚝도 안 부땡 스락하고 경헌다게.(신흥2리, 김○생)

(4) 우리 시집오란 보난에 물들이는 거 감벳기 었었어. 집집마다. 흰 거는 못 입고 게난 감으로만 들이민 그자 입었지, 감으로만 옷옷도 **감옷** 아래도 **감옷**. 문 **감옷**이라. 게난 돈 이신 사름은 다 저 곤 옷덜 사단 입었주만은 우리 경 어렵게 살아난에 경. 흰 차 입으민 금방 옷 버물 거난에 감 들이민 흰 삼 일도 입어. 밧에 가 오민 기냥 흑칠하고 허난. 옷 빨아도 저 흑만 벗어져도 입어. 흰 거는 못 입지.(태흥리, 양○화)

구술(1)~(4)에는 ‘갈옷/감옷/감든옷’의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입기도 간편하고, 더러움도 덜 타고, 땀도 붙지 않아 스락해서” 일할 때는 ‘감옷’이 제격이라는 것이다.

‘갈옷’이 ‘감을 들인 옷’ 명칭의 대명사가 된 것은 관련 연구와 매체 등에서 ‘감옷’이나 ‘감든옷’보다는 ‘갈옷’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갈옷’과 함께 ‘감옷’과 ‘감든옷’의 명칭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갈옷/감옷/감든옷’은 감을 으깨거나 감을 짠 감물로 염색한 옷이기 때문이다.

2.1.2. ‘갈’, ‘감’, 감물

‘갈옷/감옷/감든옷’의 재료는 ‘감[柶]’이다. 이 감을 이용하여 제주 사람들은 제주 특유의 옷을

3) 제보자들은 ‘감물을 들인 옷’은 ‘갈옷’보다는 ‘감옷’을 더 자연스럽게 썼다. 조사자가 ‘갈옷’이라고 물어선 지 ‘갈옷’이라고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옷’이라고 하였다. ‘감옷’이라고 쓰는 것을 확인하면 이내 제보자들은 “갈옷엔도 허고 감옷이엔도 현다.”며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만들어 입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갈옷’은 ‘갈+옷’, ‘감옷’은 ‘감+옷’, ‘감든옷’은 ‘감들다+옷’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다. ‘감들다’는 다시 ‘감들+나+들다’ 구성의 어휘다. ‘갈옷, 감옷, 감든옷’은 모두 감을 이용해서 염색한 옷이기에 감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갈’과 ‘감’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갈’과 ‘감’은 ‘갈옷, 감옷, 감든옷’의 재료인 ‘감’을 이용한 염료인 ‘감물’의 의미로 쓰였다. 감을 으깨어서 옷이나 천에 염색을 하는 행위나 모습을 ‘갈 들이다, 감 들이다, 감물 들이다’라고 하는 데서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갈’이나 ‘감’은 ‘감물’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갈’이 ‘털 익은 감에서 나오는 짙은 즙’의 의미인 ‘감물’의 의미로 쓰인 것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구술 (6)과 남원읍 태흥2리 구술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감물을 들이는 일을 ‘갈 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갈⁴⁾’이 옷에 스며드는 것을 ‘갈물’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5) **감물 들어** 밧주. 우리 친정에 큰아버지네 감나무집이엔 행 큰 나무가 있어서. 소문 나났어. 감낭 칩 행. 경 헨에 난 어린 때니까 어머니 아버지네가 거 감 강 땅은에 **갈 들이는** 거 밧어.(하천리, 강○순)

(6) **갈 들일 때** 깨끗이 빨아 똥 들여야주. 경 몸에 입어난 몸심도 들고 그디 구둣도 부르고 헨 걸 그디 **갈 들영** 똥느냐? 깨끗이 빨아 똥 **갈 들여사 갈물도** 그 옷에 깨끗이 들영 밧도 곱닥하게 밧주.(신흥2리, 김○생)

(7) 여자가 입는 거주. 굴중의. 갈중의는 그거 **갈 들인** 거난 갈중의주게.(태흥2리, 양기화)

(8) 감물 짙은에 그 기지에다가 **감 맥이면** 그냥 색이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펜펜헨 디다가 그걸 날 편헨게 다 널어. 널영 그거를 돌르면 또시 그 옷을 가져강 물을 적저. 물 잇인 디 강 물을 텨박텨박텨 박 적저다가 또 영 널영헨면 빨근 빛이 나와.(북촌리, 백○옥)

‘갈물’이 옷에 잘 들기 위해서는 옷을 깨끗이 빨 후에 ‘갈’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갈물’이 잘 스며들어 바래면 옷 색깔이 곱다고 한다. 구술 (8)에서 보듯이, ‘감 들이’는 것을 ‘감 맥이다’라고도 한다. 갈옷의 색을 ‘감색’, ‘갈색’이라는 표현에서도 ‘갈’과 ‘감’이 감물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갈: 털 익은 감에서 나는 짙은 즙. 갈물, 감물. 시삽(柿澗)
- 감: 털 익은 감에서 나는 짙은 즙. 감물. 시삽(柿澗)
- 감물: 털 익은 감에서 나는 짙은 즙. 염료나 방부제로 쓴다.≒시삽.(《표준국어대사전》)
- 갈물: 떡갈나무 껍질에서 얻는 검붉은 물감.(《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서 ‘감’은 감물의 재료인 열매인 ‘감(柿)’과는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 셈이다.

2.2. 갈옷 종류

4) 필자는 2006년 한림읍 월령리에서 ‘갈’을 조사한 적이 있다. 제보자는 이때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그물을 ‘갈물’을 이용하여 염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갈물’은 떡갈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염료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떡갈나무 뿌리를 끓인 물에 면실을 넣어 끓이면 면실이 뻗뻗해서 그물을 짜면 질겨서 좋다고 하였다.

‘갈옷’과 관련 문화를 구술해준 제보자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갈옷/갈옷/감든옷’은 밭이나 들, 바다에서 일하며 입는 ‘일복’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갈옷을 입는 장소와 옷의 모양이나 형태도 바뀌고 있다. 이들이 갈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는 밭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성년이 되었을 때이거나 결혼 이후다. 어렸을 때 갈옷을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드문 편이다.

제보자들이 기억하는 ‘갈옷/갈옷/감든옷’은 어떤 옷이었으며, 종류는 어떤 옷들이 있을까?

윗옷과 아래옷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윗옷은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 등이고, 아래옷은 ‘갈중의/감중의/감든중의, 갈정뱅이/갈점뱅이/감정뱅이, 갈굴중의/감굴중의/감든굴중의’ 등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2.1. 윗옷

2.2.1.1.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 갈독지, 갈등지게, 감저고리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적삼’은 예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가운데 하나인, 윗도리로 입는 여름 홑옷을 말한다.

(9) 우이게, **갈적삼**계. 갈몸빼. 아이고 거 밭디 매일 꽃어 아정 가난에게. 몸빼 이추룩 광목이나 미녕이나 행 만들양들 저 감 들영 입엄주.(화북2동, 백○성)

(10) 우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자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됴민 **감든적삼** 경헤어나신디, 이거도 할망덜 감든굴중의.(금성리, 이○자)

(11) 우에 거 **갈등지게** 헤낫주게. 아고 나 저 옷 드라게, 저 **갈등지게** 경헤나난. 그냥 나 이 할망 굴아난 거 들구 굴아점저게. **갈적삼 갈적삼**허는디 **갈등지게**. 저 할망덜 만든 건 **갈적삼** 영 헤여근엥에 흐깁 길게 허영 영 버짜허게 부뜨지 안형 그자 옛날 저고리추룩 그런 식으로 할망덜은 만들어근엥에 헤낫주게.(일과1리, 고○자)

(12) 적삼은 만들어나도 나 **감적삼**은 안 입어 뵈어. 감몸빼는 이제도 입주만은. 적삼은 안 입어, 요새. 감몸빼. 그런 건 만들양 입고 이제 저 복덜 주면은 그걸로도 입고 경허주.(월정리, 현○래)

(13) 남츠들이 갈중의 입영 펄락흔 거 입고 행 갈중의 저 하르방 보라 갈중의 멋지게 입엇져. 또 우리는 몸빼. 우테 입는 건 **갈독지**.(북촌리, 백○옥)

구술 (9)~(13)에서 보듯이, 제주 사람들은 같은 옷 종류라도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서 ‘감물을 들인 적삼’을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 갈독지, 갈등지게’와 같이 다양하게 불렀다. 제주시 화북2동은 ‘갈적삼’, 애월읍 금성리에서는 ‘감든적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1리에서는 ‘갈적삼’과 함께 ‘갈등지게’⁵⁾라고 하였다. 구좌읍 월정리에서는 ‘감적삼’, 조천읍 북촌리에서는 ‘갈적삼’과 ‘갈독지’처럼 말하였다.

구술 (11)의 “갈등지게, 할망덜 만든 건 갈적삼 영 헤여근엥에 흐깁 길게 허영 영 버짜허게 부뜨지 안형 그자 옛날 저고리추룩 그런 식으로 할망덜은 만들어근엥에 헤낫주게.”에서 알 수 있

5) ‘등지게’는 등거리에 해당하는 방언이다. 그런데 제보자는 적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양순자·장태선의 구술에 “옛날엔 적삼에 깃 다 있어. 이건 적삼이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등지게라, 등지게. 옛날 말로는 등지게. 지금 그 갈적삼은 깃이 잇엇주게. 남자나 여자나 깃이 잇고.”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등지게’는 깃의 유무에 따라 깃이 있는 것은 적삼, 깃이 없는 것은 ‘등지게’로 구분하고 있다.

듯이 ‘갈적삼’은 저고리보다 조금 길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2.2.1.2. 감저고리, 갈저고리

‘감저고리/갈저고리’는 저고리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저고리는 한복의 하나로, 윗도리의 하나다. 적삼이 홑옷인데 비하여 저고리는 겹옷이다. 보통은 ‘적삼’에 물을 들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고리에 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14) **감저고리**, 감적삼 경 곱습니다.(수원리, 김○춘)

(15) **갈저고리** 이추룩 만들어. 없는 사름은 겨울에도 입지.(하천리, 강○순)

한림읍 수원리에서는 ‘감저고리’, 표선면 하천리에서는 ‘갈저고리’가 조사되었다. ‘갈옷’은 주로 여름철에 입는데, 없는 사람들은 저고리에 감물을 들여서 겨울에도 입었다고 한다.

2.2.1.3. 갈쫂께, 감쫂끼, 감든쫂께

‘갈쫂께, 감쫂끼, 감든쫂께’는 감물을 들인 조끼다. ‘조끼’를 제보자들은 ‘쫂께, 쫂끼, 쫂끼’라고 하였다. 조끼는 윗옷을 입은 위에 덧입는 옷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복으로 입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입었다.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 입기도 하였지만 삼베를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16) 쫂께 남자덜이나 입주. 등거리엔 허주만, 남자덜 **갈쫂께** 입은 사름도 잇주게. 베에들 감 들영 상그랑허게.(화북2동, 백○성)

(17) 감든중의. 감든적삼. **감든쫂께**. 그 하르방덜이난 담배도 낱 멩기는 거. 그냥 어지령씨령헌 거. 그냥 소매 찢른 걸로 이 쫂께 7추룩 허진 안 헤도 이런 거 소매 찢른 걸로 헤여근에 베나 미녕으로나 쫂끼 허영 감 들영 입영 멩겨.(금성리, 이○자)

(18) **갈쫂끼** 이거 잘도 오랜 거여.(수원리, 김○춘)

(19) 남즈들도 이신 사름은 흔 멩 개 **갈쫂께** 행 입곡. 요즘은 누구나 막 이런 쫂께 입어도 그땐 아무나 그런 쫂께도 못 입었어.(법환리, 현○열)

구술 (16)에서처럼 “베에들 감 들여서 상그랑허게(화북2동)” 입거나, 구술 (17)에서 보듯이 “담배도 낱 멩기”기 위해서 주머니를 달아 입기도 하였다. 주로 남성들이 입었다. 구술 (19)에서 보듯이 ‘갈쫂께’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

2.2.1.4. 갈등거리, 베갈등거리

‘갈등거리’는 감물을 들인 등거리다. ‘등거리’는 등에 걸쳐 입는 홑옷의 하나다. 보통 깃과 소매 없이 삼베 따위로 간단하게 만들어 입는 여름옷이다. 따라서 ‘갈등거리’는 등 거리에 감물을 들인 옷인 셈이다. ‘등거리’는 소매 없이 조끼 비슷하게 만들지만 맨살 위에 입는 점이 다르다. 주로 ‘미녕(무명)’이나 삼베 따위로 만들어 입는데 시원하게 입으려고 감물을 들여서 입기도 하였다. 구술 (20)의 ‘베갈등거리’는 베로 만든 등 거리에 감물을 들이거나 감물을 들인 베를 이용하여 만

든 옷이다. ‘베등거리’는 베로 만든 등거리인 셈이다.

(20) 이거 등거리계. 갈등거리. 근데 이것도예 이것도 막 입었거든. 거니까 여름에는 소매가 없지만. 여자는 갈적삼이엔 헛주게. 이거 저기 베갈등거리, 남자덜은 등거리엔 허고 적삼이라고 그랬어. 베등거리라고도 허주만은.(금성리, 이○자)

(21) 등거리가 인제 조끼주게. 이거는 으름 때에 집이 오라근에 그거 감옷 벗어뒤근에 밥 먹을 때. 엇은 집이 엇어 그거. 미시거 천이 엇기 때문에 옷을 멘들 것이 엇거든. 이 감든옷은 문딱 미녕이어 난.(용수리, 양○월)

(22) 옛날에 베가 서나서. 베로 이제 저 난닝구 대신 쥐끼 만들앙 입으면 이 몸이 스락해. 뚝이 안 부뜨고. 그거 우티다가 갈독지 입는 거라.(북촌리, 백○옥)

(23) 옛날 할망들 일로 영 혜영이, 영혜영 가심만 막아근에 감 들영 쪼끼. 아무것도 안 입영 그냥. (낙천리, 김○평)

구술 (22)와 (23)의 “난닝구 대신 쥐끼 만들앙”, “가심만 막아근에 감 들영 쪼끼. 아무것도 안 입영 그냥”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때 “쥐끼, 쪼끼”가 앞의 ‘갈등거리’의 의미로 쓰인 셈이다. 제 보자에 따라서는 ‘등거리’를 ‘어깨말이’, ‘뚝바데’ 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깨말이’는 어깨끈만 단 속옷, ‘뚝바데’는 땀을 받아 내려고 걸옷 속에 입는 옷인 ‘땀받이’를 말한다. ‘어깨말이’와 ‘뚝바데’는 여름철에 베로 만들어서 감물을 들여 입는 경우가 많았다.

(24) 옛날도 쪼끼계 저 베에 들영 입어나수다. 베에. 뚝바데 훈 건 대로 짜져근에 훈 거게. 족대나 왕대 겹죽으로 짜진 옷 입어나수다. 하르방들. 영 들러지게 소굽에. 쪼끼?치 생겨. 왕대 겹죽으로 짜진 거, 얇게 하여. 멧쟁이 하르방덜. 것?라 뚝바데.(수원리, 김○춘)

한림읍 수원리 김○춘은 구술 (24)에서처럼,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족대(이대)’나 왕대 겹대의 대오리를 이용하여 조끼처럼 짜서 옷 안에 입기도 하였다고 구술하였다. ‘뚝바데’가 무명이나 삼베가 아니라 ‘족대’를 이용했음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입다가 현 면이나 마로 된 와이셔츠나 티셔츠에도 감물을 들여서 있었다.

(25) 남자는 저 와이셔츠 식으로 만들안 입어라. 저 우리 할망은 손지 보난 멘들안 쥐라. 에리 엇이 그냥 영 혜영 허는 거 잊지 아녀나게? 적삼은 적삼 식이라이. 그런 거 허연 허고.(일과1리, 고○자)

2.2.2. 아래옷

2.2.2.1.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

감물을 들인 대표 갈옷은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다.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는 ‘중의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중의’는 예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가운데 하나인 남자의 여름 훌바지를 말한다. 주로 ‘미녕(무명)’이나 광목을 이용하여 만든다. 지역에 따라 옷 이름도 달리 나타나는데, 애월읍 금성리에서는 ‘감든중의’, 서귀포시 천지동에서는 ‘감중의’, 한경면 낙천리와 구좌읍 덕천리에서는 ‘갈중의’라고 하였다. 구술(26)~(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중의’는 남

자들이 발일을 하는 등 일할 때 입었던 일복이었다.

(26) 영장 밧디 가는 하르방덜은 **감든중의** 입영 거주기. 그땐 문으레 영 혁덜토 날르곡 테역덜토 헤 영 날르곡. 일헐 거난.(금성리, 이○자)

(27) 나도 감웃은 안 입었어. 그 어린 때난. 어머니는 **갈중의**만 입었지. 밧디 갈 때는. 난 우잇 건 안 입어. 아랫 것만 입어. 우잇 건이 뚝 부떠나민 이디 색깔이 변하여.(낙천리, 김○평)

(28) 남저들 **갈중의** 입어. 여자들 거는 갈몸빼, 감몸빼. 옛날 어르신덜은 이디 영 해근에게 이거 저 무시거 정강다리 메는 거 그것 보고 하영 **갈중의엔** 허주게. 허리 해근에게 저 고무 아니 방 그냥 허리띠 무고게. 남저 입는 건 **갈중의**. 이건 그자 갈몸빼.(덕천리, 이○숙)

(29) 감웃은 일헐 때만 입는 거난이, **갈중의**. 저 중의 멘들곡 남저들 입는 건 허릴 요만이 허게 행 톱로 부짚다.(천지동, 임○은)

2.2.2.2. 갈굴중의, 갈중의, 감든굴중의

‘갈굴중의, 갈중의, 감든굴중의’는 ‘굴중의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굴중의’는 여성들이 입는 전통 한복의 하나로, 허리에 주름을 잡고 바지통을 넓게 해서 만든 속옷이다. 보통 밑을 터서 만드는데 치마 안에 입는 옷이다. 감물을 들여서 일복으로 입기도 하였다. 구술 (31)과 (32)에서 확인하듯이, ‘굴중의’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와 태흥2리에서는 ‘갈중의’라고도 하였다. 반면에 남자들이 입는 바지를 ‘갈정벙이’라고 하여 ‘갈중의’와 구별하여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서의 ‘갈중의’는 ‘2.2.2.1’의 ‘갈중의’와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경우다.

(30) 우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자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뉘민 감든적삼 경헤여 나신디, 이거도 할망덜 **감든굴중의**.(금성리, 이○자)

(31) 어머니 굴중의 입었어. 갈 들인 **갈굴중의**. 일헐 때. 경허고 갈적삼. **갈굴중의**는 이디 다리 널른 거. 그거 **갈굴중의난에** 이렇게 영 졸라메는 거. 우엔 갈적삼. 치메 어디 무뚱에 메낭이라고 해서 요만은 현 걸치는 거 그디 걸쳐당 **갈중의** 적삼 입영 일허당 동네 무신 일이 이시민 확 느류왕 입으멍 들으멍 간다.(신흥2리, 김○생)

(32) 굴중의나 갈중의나 ㄱ틀 건디 여자가 입는 거주. 굴중의. **갈중의**는 그거 갈 들인 거난 **갈중의 주게**. (남자가 입는 건?) 점벙이. 점벙이엔 허는 것도이 그것도 점벙이도이 그것도 몰르는 것도 다른 거주룩 몰르지 안허여. 딱로 몰르는 거라, 남자 ㄱ추룩 허는 거.(태흥2리, 양○화)

구술 (31)을 보면, “갈굴중의는 이디 다리 널른 거. 그거 갈굴중의난에 이렇게 영 졸라메는 거. 우엔 갈적삼.”이란 구술 내용에서 보면, ‘갈굴중의’와 ‘갈적삼’을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굴중의’는 중의의 가랑이가 넓어서 중대님을 ‘졸라메’야 일을 할 수 있다. 집밖을 나갈 때는 ‘굴중의’ 위에 치마를 걸쳐 입었다.

2.2.2.3. 갈점벙이/갈정벙이

‘갈점벙이/갈정벙이’는 ‘점벙이/정벙이’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점벙이·정벙이’는 잠방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빌리면, ‘잠방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표준국어대사전》)로 제주에서의 ‘점벙이’는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33) 옛날엔이 여름엔 갈옷벵기 엇엇주게. 남저들은 그저 **갈점벵이**만 여름에 입영만 살앗주. 여자덜은 갈적삼허곡 갈몸빼 입고.(법환리, 현○열)

(34) 감물 들인 옷 **갈정벵이** 갈적삼벵긴 엇다게. 기자 흰옷 헤영 제서 때에 절헐 때 허는 건 정벵이적삼. 저슬에는 바지저고리. 훗 거 안 안 부찐 건 정벵이. 여름엔 정벵이적삼. 겨울엔 바지. 바지는 안광 겁데기 사이에 숨 흐썰 놔야.(신흥2리, 김○생)

구술 (33)과 (34)를 보면, ‘점벵이·정벵이’는 짧은 바지라기보다는 2.2.2.1.의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와 같은 개념의 ‘중의’ 뜻으로 쓰고 있다. ‘갈점벵이’는 서귀포시 법환동, ‘갈정벵이’는 남원읍 신흥2리에서 조사되었는데, 남자들이 여름에 적삼과 함께 입었던 옷이다. 반면 이 지역에서 ‘갈중의’는 여자들이 입는 ‘감굴중의’를 말한다. 구술 (31)의 “굴중의나 갈중의는 ㄱ틀 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중의’는 남자들이 입는 ‘점벵이’와 다른 여자 옷인 가랑이가 넓은 ‘굴중의’로 인식하고 있다.

구술 (34)를 보면, “감물 들인 옷 갈정벵이 갈적삼”은 일복으로 평상시에는 입지 않았다. 평상시와 제사 때에는 ‘정벵이적삼’을 입어도 감물 들인 옷이 아니라 흰옷으로 입었다.

2.2.2.4. 갈몸빼, 감몸빼

‘갈몸빼, 감몸빼’는 감물을 들인 ‘몸빼’를 말한다. ‘몸빼’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들여온 일바지다. ‘갈몸빼’는 남원읍 신흥2리, 구좌읍 덕천리 등에서 조사되었고, ‘감몸빼’는 대정읍 일과1리와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북촌리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35) 저 **감몸빼**는 시집간 후제사 입언. 시집간 후제사 감 들영 우리 입어세. 감옷. **감몸빼**는 시집간 후제사덜 만들언 밧디 땡기젠 허민 거 입엇잖아. 그냥 하얀 걸로 입으면 버물영이. 감들 다 잇이난 감들여근에 입엇네.(일과1리, 고○자)

(36) 남자도 갈적삼, 갈정벵이 입곡 여자도 갈적삼, **갈몸빼** 입곡 경행 헛주. 중의엔 헌 옷이 또 뜬 식으로 멩그는 것가 잇어. 갈중의가 잇어. 이런 디 흐끔 널르게 헌 건 갈중의고 이거 갈몸빼, 알 쫘아진 거.(신흥2리, 김○생)

(37) **감몸빼, 갈몸빼**엔도 허고. 갈옷. 감옷. 이거 이름이 으라 가지라. (덕천리, 이○숙)

(38) 옛날은 남츠는 이디 퍼닥히고 행은에 갈중의. 우리는 **감몸빼**.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살앗어. 남츠들이 갈중의 입영 펼락한 거 입고 행 갈중의 저 하르방 보라 갈중의 멋지게 입엇져. 또 우리는 몸빼. 우테 입는 건 갈독지.(북촌리, 백○옥)

(39) 이거 다님 치는 굴중의 야냐게. 이만이 헤근에 영 헤근에 딱 즐랑. 이건 막 오랜 거고. **몸빼** 나부난게 **몸빼**만 다 입언. 나 이거 요즘 사름 이거 몰를 거라. 이거 **몸빼**보다 먼저 난 거 아니가. **몸빼** 나 결혼헐 때 그 스리에 난 거라. 그 전인 중의. 이거 치메 소굽에 입는 거 아냐? 감물 들여난 거 확실히 여우내 오랑 살명 감물을 내가 전문으로 허영 늬도 주곡다.(신흥2리, 김○생)

(40) 옛날엔 굴중의에 감 들영 입언. 그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는 **몸빼**란 거 없어. 우리 육은 후가 저 **몸빼**가 나왓주. 감 들인 굴중의도 입고 감 안 들인 굴중의도 그냥 광목으로 멩글앙 다림 쳐근에 입어. 밧디 갈 때도 그 굴중의 입영 가놋주게. 밧디 갈 때 치마 우이 입영. 할망덜은 옛날에 치메 죽장

입으난.(일과1리, 이○희)

(41) 옛날엔 저 우리 두릴 때 보면 밧 영 행 입영은에 무시 거 해신디 할망들 보문 굴중의 잇잖아. 굴중의 영 흐민 막 으라 폭 헤 불민 이것가 영 영 영 영 행 다님 쳐. 경흐민 풍탕허게 입어근에 망알 망알망알 걸으멍 해신디 그것가 그때 사라졌어. 그루후제 **몸빼**. 옛날엔 물이엔 흐 거 없영 그땐 감물 들이단 이제 검은물 나기 시작흐난 그 검은물 들어근에 **몸빼** 입곡 경 헛잖아.(하천리, 강○순)

‘몸빼’가 들어오자 여성들이 일복으로 입었던 ‘굴중의’는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에 ‘몸빼’가 대신하였다. 이런 사실은 구술 (39)의 남원읍 신흥2리 김○생의 “몸빼 나 결혼할 그 스리에 난 거라. 그 전인 중의”라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제보자 김○생은 1924년생으로 스물셋에 결혼했으니 1946년 전후에야 ‘몸빼’가 나왔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는 “몸빼가 나오니 몸빼만 입었”다고 하였다.

대정읍 일과1리 이○희 구술 (40)의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는 몸빼란 거 없어. 우리 육은 후가 저 몸빼가 나왔주.”와 표선면 하천리 강○순의 구술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은 “우리 두릴 때 보면 밧 영 행 입영은에 무시 거 해신디 할망들 보문 굴중의 잇잖아. 굴중의 영 흐민 막 으라 폭 헤 불민 이것가 영영영영 행 다님 쳐. 경 흐민 풍탕허게 입어근에 망알망알망알 걸으멍 해신디 그것가 그때 사라졌어.”라며 ‘몸빼’가 나오기 전에는 ‘굴중의’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요즘도 ‘갈몸빼/감몸빼’는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등에 많이 입는다. ‘갈몸빼/감몸빼’를 일상생활 속에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감물을 들여 입을 수 있는 것은 제주 고유의 장례 풍습과도 관련이 깊다.

(42) 그거 감둔중의, 몸빼. 어디 영장난 디서 하얀 몸빼 주문 감 들영 밧디 덩길 때 입으문 좋아.(금성리, 이○자)

(43) 흐 멧 년 전이 사름 죽으민 광목몸빼 줘낫거든. 그 광목몸빼에 감옷 들어근에 이젠 입어. 그거 종양은에 밧디 덩기는 사름 그거 입어. 뚝 안 부떠. 술에 안 부떠.(용수리, 양○월)

(44) 장 나민이 하얀 몸빼 광목몸빼 막 테외징 입나게. 이제도. 그리고 난 세 개나 메왕 이디 잇저. 울히 감 들일 거. (법환동, 현○열)

(45) 어디서 친족이 돌아가민 이 몸빼로 저 복옷을 줘. 경허민 그거 행 왕, 뭐 항상 입을 것도 아니고 이거 감 맥연 일힐 때 입젠 감 맥인 거 이거.(덕천리, 이○숙)

제주에서는 상이 났을 때 상주 쪽에서 가까운 친족들에게 ‘광목몸빼’를 복옷으로 나눠주는 풍습이 있다. 이때 받은 ‘광목몸빼’를 장례식 때 입었다가 나중에 빨아서 감물을 들여 일복 등으로 활용하였다. 구술 (42)~(45)는 그런 사례다.

‘갈몸빼/감몸빼’는 외출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46) 우리 몸빼만 입영 큰일빳딘 안 가났어. 치메 걸쳐야. 나 시절엔 장에 가나 무시거 몸빼만 입영 안 가난. 우터레 치메 걸쳐 가나신디 요즘은 치메 시나 엇이나 몸빼보다 더 빠짝헌 쓰봉이 더 유행뉘어 놓난.(신흥2리, 김○생)

제보자들 세대에서는 동네 큰일이 있거나 외출을 할 때는 ‘갈중의’와 마찬가지로 ‘몸빼’만 입는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위로 치마를 걸쳐서 나갔는데, 지금은 ‘몸빼’를 일상복처럼 입기도 하고 있으니 옷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2.2.2.5. 감치메, 갈치마

치마에 감물을 들여 입는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감치메, 감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술 (48)~(50)에서처럼 “옛날에 할망네 치메에 안 들”었다고 하였다. 서귀포시 천지동 임○은의 구술 (50)의 “갈옷은 치메나 아무거나도 옷이 쌍놈덜만 입는 옷이랴어. 천허게 보느네.”라는 인식을 반영한 탓인지 ‘감치메, 감치마’는 흔하게 물들이는 옷이 아니었다. 설령 치마에 감물을 들여도 구술 (47)에서처럼 “어디 땡길 땡 안 입”었다고 한다. 치마에 감물을 들여 입는 경우는 ‘버뭍(더러움)’이 타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47) 아이고, 우리 할망은 **치마에도 감 헤여근영에** 저 버뭍 타지 안허게 허연 입어라. 그냥 어디 땡길 땡 안 입고. 경헨에 그자 몸빼에 허어나민 버뭍 거 잇이면은 그냥 그 감 헤난 때 그것에 강 또 감땡 개만 굿다 낱 뵈앙 허든 또 들여진다게. 경허영 입어난 거 난 알아져. 그거벧기 다른 건 안 헤 받. (일과1리, 고○자)

(48) 우리 그냥 **츄 어렸을 때부터 그 감물덜은 헨에 입어세게. 그때는이 치마도 만들언 쥐났어.** 감물 헤여근영에 이런 저 광목 자치덜 잇이면 그런 거 헤여근영에 버물지 아녀곡. 그건 **ㅎ뽀 감물** 들이면 곤다게. **ㅎ교에 안 입어.** 막 어렸을 땡 나 그거 허연 치메 헨 우리 어머니가 주난 입어났어.(일과1리, 고○자)

(49) 옛날에 할망네 치메엔 안 들언. 중간에덜은 그 젊은 사람덜 **갈치메** 헨덜 입엇젠덜 막 **골으는디 난 안 봐반.**(일과1리, 이○희)

(50) **갈치메**는 안 입영 땡긴다. 갈옷은 치메나 아무거나도 옷이 쌍놈덜만 입는 옷이랴어. 천허게 보느네, 갈옷 입영 땡기는 사름은. 이제난 대통령이라도 갈옷 입영 땡겨주, 큰일나. 상열리 소낭침이엔 허민 막 부제난에 그 어른 논일 허레 갈 때도 **흰중의** 입영 가메.(천지동, 임○은)

(51) 땡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갈치메** 입어 본 사람 그거는 안 봐반, 요즘 따라는 가끔 젊은 애들이 **페션으로 갈치마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든 어른은 그게 **갈치마**를 입은 거는 저는 못 봤다고 보는데.(북촌리, 이○찬)

대정읍 일과1리 고○자는 할머니가 치마에 감 들여서 입었다고 구술하였다. 그는 또 어렸을 때 광목 자치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감물 들인 치마를 입었는데 학교 갈 때는 안 입었다고 하였다. 제보자의 세대와는 달리 요즘에는 ‘갈옷’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갈치마’도 만들어 입고 있다. 구술 (49)의 “중간에덜은 그 젊은 사람덜 갈치메 헨덜 입엇젠덜 막 골으는디 난 안 봐반.”과 구술 (51)의 “요즘 따라는 가끔 젊은 애들이 페션으로 갈치마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보자들이 인식하는 ‘갈옷/감옷/감든옷’은 여름에 입는 노동복이다. **윗옷으로는 ‘갈적삼/감적삼’, 아래옷으로는 ‘갈중의, 갈굴중의, 갈점벵이’와 ‘갈몸빼’가 대표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갈치메/감치메’를 입는 경우가 드물었고, ‘갈옷/감옷/감든옷’을 외출복으

로 입거나 제사 때는 의례복으로 입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갈옷/감옷/감든옷’ 종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보자들이 인식하는 갈옷 종류⁶⁾

연번	조사 지점	갈옷 명칭	갈옷 종류	기타	
1	제주시	삼도2동	갈옷/감옷	(갈)몸빼, (갈)쪼개	조개
2		화북2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납), 갈굴중의, 갈몸빼, 갈조개	
3		삼양2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쪼끼
4	애월읍	광명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5		금성리	갈옷/감옷 /감든옷	감든적삼, 갈적삼, 감든중의, 감든굴중의, 갈중의, 갈몸빼, 감든쪼개, 갈등거리, 베갈등거리	
6	한림읍	명월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등거리
7		수원리	갈옷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8	한경면	용수리	감옷/감든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쪼끼
9		낙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쪼끼
10	대정읍	일과1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굴중의, 갈치마, 감(갈)몸빼, 갈치마, 갈등지게, (갈)쪼개	
11		신평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와이셔츠
12	안덕면	사계리	갈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갈조끼	
13		갑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14	서귀포시	법환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반바지
15		천지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굴중의	땃바테
16	남원읍	신흥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갈굴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쪼끼
17		태흥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18	표선면	가시리	갈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쪼개	
19		하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굴중의, 갈몸빼	
20	성산읍	고성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어깨말이
21		오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22		난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23	구좌읍	신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점벙이, (갈)굴중의, 감몸빼, 갈쓰봉	
24		덕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감몸빼	조끼
25		월정리	갈옷/감옷	갈적삼, 감중의, 갈굴중의, 감몸빼, 갈속곳	
26	조천읍	와산리	갈옷	갈적삼, 갈독지, 갈중의	
27		북촌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독지,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감몸빼	

2.3. 갈옷에 대한 인식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옷/감옷/감든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언제 입었으며, 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입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옷/감옷/감든옷’은 여름철에 입는 노동복으로 출발해서 외출복이나 제주 지역을 상징하는 옷으로 그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땀이 몸에 배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갈옷 특유의 색감과 제주 풍토에 어우러진 ‘제주 옷’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소재와 디자인을 달리하며 새로운 유행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6) 여기에서 ‘갈옷’ 종류 명칭은 제보자들이 제시해 준 대로 작성한 것이다. ‘갈적삼’이라고 하면 ‘감적삼’이라고 표기하고, ‘적삼에 감물 들었’이라고 했을 때는 ‘(갈)적삼’처럼 표기하였다. 기타 부분은 감물을 들여 입은 옷 가운데 감(갈)이 들어가지 않은 옷 종류를 제시하였다.

2.3.1. 옷에 대한 생각

제보자 대부분은 ‘갈옷/감옷/감든옷’은 ‘일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술 (52)~(59)를 보면, ‘갈옷’은 일할 때만 입던 일복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평상복이나 외출복, 특별복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갈옷’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

첫째 일복이라는 생각이다.

(52) 우리 어무니네 삼춘 시절엔 이 갈옷은 입으면 이제 제사칩이도 안 가고양, 노동복이엔 해근에. 우리 매누리가 그 공회당에서 그 투표할 때 그냥 요새 신식 저 갈몸빼 입언에 투표 강 해오난 우리 어머니가 투표하는 큰어른 뽀는디 갈중의 입언 가윗젠 경헌 말을 들었어게. 옛날 어른덜은이 갈중의 입언 함부로 이 제사칩이도 안 가고 경사난 디도 안 가곡. 옛날은이 오로지 밧디.”(삼양2동, 강○향, 강○숙)

(53) 갈옷은 이제 보리 수확할 때 여름 조팃디 그때는 계속 입었주. 게난 유월, 칠월, 팔월 더운 때. 겨울엔 아니 입어.(삼양2동, 강○향)

(54) (미녕) 그 흑 부뜨곡 뚝나는 디선 그거 헐 수가 었어. 기냥 미녕에 검은물 들영 입어도 멘드락 허면 막 흑 부뜨고 탁탁허곡 갈옷은 노동일을 태우니까게 사락사락사락. 건 비누칠 안 해도 그자 잘 강잘강행 감 들인 건 노로 탁탁 털영 뽀얗 널어도 뚝곡.(물에만)발강발강발강헤영.(화북2동, 백○성)

(55) 옛날에 보리 헐 때 저 들로 이렇게 훑아났거든. 그때 이 갈옷이가 꿰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 구마줄로 논 때 이것도 꿰고야. 이건 여름에 땀이 안 부떠. 밧디 강 검질멜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 행 땀을 안 부떠.(삼도2동, 강○자)

(56) 우리 시아버지 허는 말, 그건 천헌 옷이라. 무슨 제삿날에 갈옷 입영 왓서? 경헌 말을 나 딱 들었어. 아맹해도 갈옷은 천헌 옷, 일할 때만 입는 옷이로. 어른덜 예쁘게 행 와도 갈옷은 갈옷이라.(광령리, 박○선)

(57) 감옷 쉼 보레 갈 때, 밧디 갈 땀 그런 거 입영 가근에 슻락하게 헤가지고. 작업복이라도 감옷을 입으면 좋지.(북촌리, 백○옥)

(58) 노동을 할라고 허든 갈중의 입어서. 노동복이지 외출복은 아니라 이겁니다. 요즘은 폐손이라고 헤가지고 이제 그 외출복을 하는데, 그 당시는 말 그대로 갈중의. 이 노동복이예요, 노동복. 그 당시에는 제(祭) 보는 남자의 경우에는 갈중의 입으면은 주변에서 욱을 헤. 어디 그 일허는 작업복을 입어 와서 제를 보겠나.(북촌리, 이○찬)

(59) 감옷 일헐 때만 그거 입거든. 웨 일헐 때만 그거 입나면은 것이 뚝이 잘 안 부떠게. 솔그랑허여.(용수리, 양○월)

‘갈옷/감옷/감든옷’은 뜨거운 여름철에 보리를 수확하거나 조밭의 ‘검질’을 맬 때, 고구마 줄기를 심을 때, 목장에 소를 보러 다닐 때 등에 입었던 일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옷/감옷/감든옷’은 큰일 때나 외출복, 제사를 지내는 의례복 등 특별한 용도로 입는 것을 경계하였다.

즉, 앞의 구술 (52), (56), (5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옷’은 일할 때 입는 노동복이지 제삿집에서 입거나 외출복으로 입으면 흠이 되었다. 갈옷을 입어서 제삿집에 오거나 투표하러 갈 때 입은 모습을 보고 옛 어른들이 곱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둘째, ‘갈옷/감옷/감든옷’이 ‘일복’에서 ‘일상복’, ‘외출복’ 등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 제보자

들은 ‘갈옷’을 여전히 일복으로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디자인과 모양 등을 새롭게 하면서 갈옷에 대한 인식과 용도도 바뀌고 있다.

(60) 그자 감물 들인 건 그냥 땅에만 입는 거. 이젠 촌 감물 들인 거 알아줘근에 신사?치 입어. 으 대통령도 입고 이제사. 아이고 삼베에 감물 들인 거 얼마나 이쁘나 꿰고지.(용수리, 양○월)

(61) 아이 땀 안 입곡. 이디 결혼헨 온 후제사 감물 만들언 입언. 그거 요새들은 모양으로 입엄주만 은 입기 실패.(낙천리, 김○평)

(62) 여름에 웨방 갈 때도 중간엔 막 갈옷덜 행 막 입어났어. 이제도 감물 입는 사람덜은 입으메. 이제도 입는 사람은 입는디 나 그때 마흔 넘은 땀 거라. 웨방 갈 때도 그 곱닥허게 맨글아근에 절간에 가는 사름덜도이 입영 가고. 우인 안 입고 아래만 입언. 몸빼만 입고 우인 또 다른 거 입고. 장에 간 때도 입고 어디 먹으레 갈 때도 입고. 젠디 이제는 잘 안 입엄신게. (일과1리, 이○희)

(63) 옛날엔 이제보담 더 많앗주, 옷이 옛이난에. 갈적삼도 행 입곡, 갈몸빼도 행 입곡, 또 요즘도이 막 저 귀헌 걸로이 사치로이 더 요새 감물 빌언 허고 잇어, 감물 들이고 잇어. 요새 사름덜은 그 감물 들언 저디 테레비에 막 나오잖아.(법환리, 현○렬)

(64) 갈몸빼 훈 스물댓부터 입어난 거 닳은디. 어릴 때는 안 입어난. 어른덜 입은 것만 알주. 어른덜은 다 감 들언 입어. 할머니덜.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뭐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헨 치마로 헤영 만들언 입는 거 테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물 안 입어봤어. 일헨 땀 이걸로 입언.(덕천리, 이○숙)

구술 (60)~(64)는 ‘갈옷/감물/감든옷’의 용도가 노동복에서 일상복, 그리고 외출복, 특별복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땅에만 입는 옷”에서 요새는 “감물 들인 거 알아줘근에 신사?치 입어.”, “요새들은 모양으로 입엄주마는”, “여름에 웨방 갈 때도 중간엔 막 갈옷덜 행 막 입어났어. 젠디 이제는 잘 안 입엄신게.”, “요즘도이 막 저 귀헌 걸로이 사치로이 더 요새 감물 빌언 허고 잇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뭐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헨 치마로 헤영 만들언 입는 거 테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물 안 입어봤어.”에서처럼 기능과 모양,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갈옷’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옷’도 재질과 모양, 기법, 디자인 등을 달리하며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옷은 시대와 장소, 기능, 입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유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복으로 입었던 제보자들은 구술 (56)의 “아멩해도 갈옷은 천헌 옷, 일할 때만 입는 옷이로 어른덜 예쁘게 행 와도 갈옷은 갈옷이라.”, 구술 (61)의 “요새들은 모양으로 입엄주마는 입기 실패.”라는 대목에선 ‘갈옷’을 대했던 태도와 선입견이 바뀌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2.3.2. 선호하는 이유

그럼에도 여름철에 입는 노동복이나 일상복 등으로 ‘갈옷/감물/감든옷’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효용성을 살펴보자.

첫째, 땀이 몸에 붙지 않는다. 땀이 몸에 붙지 않으니 옷도 몸에 붙지 않아 ‘슬그랑하니’ 촉감이 좋기 때문이다.

(65) 땀띠 안 나고, 땀 안 부트곡 허니까 노동복으로 처음에는 탄생헌디 이젠 막 멋쟁이들이 입으면

멋지게 보ୟ주마는 원래는 노동복이에요.(삼양2동, 강○향)

(66) 감든중의 몸빠로 주른 이제 그거 허영 감 들영 허영. 저 감 한 뒤에 보리 한 뒤 그 뭇 헤엿주만 우린 이디 이 우녁집이 삼춘이 시난 훈 뒤씩 쥐. 정은에 저 밧디 덩길 때 입으은, 밧디 덩길 땀 **뚝 안 부땡** 살그랑헝 좡주기게. 치닥치닥 안 혀.(금성리, 이○자)

(67) 감웃 일헝 때만 그거 입거든. 웨 일헝 때만 그거 입나면은 것이 **뚝이 잘 안 부땡게**. 솔그랑허여.(용수리, 양○월)

(68) **갈웃 입으면 이 뚝이 안 부트거든**. 몸에 부트질 아녀. 경허니까이 저이 농촌엿 사름은 여름에 갈웃을 입어야.(낙천리, 김○평)

(69) 지금 남저나 여자나이. 입다근에 티샤스 거 하얀 거 이상헌 거 잇잖아. 그런 거 허은 농그랑허주게. 게민 감물 들이민이 것이 슻락헝 여름에 **뚝 안 부땡근에이**. 여름에 웨 감웃을 주로 입느냐 허민 **뚝이 안 부땡 가지고** 슻락헝에 그 감웃을 입는 거.(법환리, 현○열)

(70) **여름에 뚝나민 피잘피잘 다른 건 모랑헤 부난 몸에 부땡 허주만 갈웃은 슻락허난 몸에 부뜨지 아녀고** 기자 이 무신 검은 거나 아무 거라도 툃허게 검은 점을 찍어져도 그 슻못 흰 것에 찍어진 거 추룩 흰허게 나타나지 안허고 그자 7치 여중거렁 살아가는 거.(신흥2리, 김○생)

(71) 갈중의 입영게 물일도 가고 하간 거 허주게. 작업복으로 옛날은. 밧디 김 메러도 거 입영 가고 바다에고 뭇 어디고 일 허레고 갈중의가 좡아. **뚝 안 부땡**.(북촌리, 백○옥)

확대 해석하면, '갈웃/감웃/감든웃'은 뚝이 잘 붙지 않아 우비 대응으로 비 날씨에도 입었던 가능성 옷이었다. 그 사례는 구술 (71)에서 찾을 수 있다. 구술 (72)는 '감웃'을 '비웃'처럼 사용했던 예이다. 실제로 감물을 들여 우산처럼 만든 경우도 있었다.

(72)주로 갈웃이 그냥 **장마에도 슻락허게 입곡** 그때는 장에서 이추룩 오천 원짜리 푸는 게 허나도 엇엿주게. 게난 주로 갈웃 멘들앙 장마에도 그거 입으민 몸이 슻락헤근에, 칙칙허지 안헤. 게난 계속 만들어 입엇지.(신평리, 이○자)

(73) 우리 저 비 온 날, **비 올 때 아무 거 옛날에 엇인, 그 저 감웃 입영 착헝 가달로 이디 오게 헤 근에 영 헝 씨근에 비 오는 날 어디 갈 때 경 헝 어디 덩겨났주**. 옛날엔 우산도 엇곡, 아무것도 엇어 놓난.(천지동, 임○은)

들째, 시원하다.

(74) 갈웃은 뚝 안 부땡 솔강허영 좡주기. 그디 솔강허고 그냥 **시원허고** 뚝떼기도 잘 안 나고.(금성리, 이○자)

(75) 이제 우린 감물 들영 우이 뭇 이런 옷도 만들앙도 입고 그냥 와이샤쓰에 물을 들영도 입곡 우알로 감웃을 안 입으민 여름에 일을 못 헤. 땀 옷들은 몸에 부땡 안 뉘. 갈웃은 몸에 부뜨지 안허고 입을수록 **산도록헤**.(신평리, 이○자)

(76) 여름엔 갈웃 입으민 막 **컨드럽주게**. 밧디 일헝 땀. 일 안헝 땀 뭇 안 입으난 몰르주만은 일헝 땀 감웃은 뚝 나도 솔에 안 부터. 솔에 안 부르기 때문에 일헝 땀 갈웃이 막 좡아. 여름에 입주만은 가을에도 일헝 땀 입엇주게. 겨울에는 안 입언. 농서지는 사름은 감덜 다 들엇어.(일과1리, 이○희)

(77) 갈웃 입으민이 갈웃이 사락사락헤 부난 몸에 부뜨지 안허난 막 **시원헝** 좡나게.(신흥2리, 김○생)

(78) 어떤 사름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헝 땀 그거 버뚱 안 타주게. 게곡 슻락

하고 덥지 안하고. 몸에 잘 부뜨지 안행 막 시원해여. 경허난 영 감을 들연 옛날.(덕천리, 이○숙)

제보자들은 “여름에 갈옷을 입으면 막 건드럽다”, “갈옷은 몸에 부뜨지 안하고 입을수록 산도 록해.”처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시원하다’는 표현을 ‘건드럽다’, ‘산도록하다’라고도 하였다. 시원하고 땀이 안 붙으니 ‘땀데기(땀띠)’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름철에 밧일 할 때 감물 들인 옷을 선호하는 이유다.

셋째, 감물을 들이면 옷감이 질겨지고 코팅 효과가 있다. 이는 옷감에 감물을 들이면 코팅 효과가 있어서 질겨진다. “나일론옷을 땀이 삐적삐적”하는데 ‘감옷’은 땀이 스며들어도 달라붙지 않아 느낌이 좋고 질기다는 것이다.

(79) 나가 입어 보면. 이런 나이롱옷은 입으면 이디가 삐적삐적허멍 땀이 어떻 스며들지 안허는디 그 땀은 스며들면서도 이렇게 딱 달라부뜨진 안하고 그것이 뒗엔사 표현허민 몰라도 느낌이 좋은 거. 감옷 입으면은 더우지도 안하고 땀도 덜 난 거 닻고 질겨마씨.(광령리, 박○선)

(80) 옛날 할머니부터 그 갈옷을 입으면 그 갈옷 그거이 질기고 옷에 흑도 잘 안 부뜨곡. 몸에 땀도 안 부뜨곡. 경허난 거 갈옷을 들영.(낙천리, 김○평)

(81) 그 감 들여진 건 질기곡 감 아이 들인디 여러주게, 풀 아녀곡 행 입는 거난에. 그 감은 죽도 풀 아녀근에 그자 허민 감옷은 세탁기 드령 빨아불민 풀 저분다. 거면 뿔 수 시민 손으로 빨곡, 비누 맥이지 말앙이. 비누 맥이지 말앙 기냥 빨아사. 게민 막 땀내 삭삭 나민 그냥 오랑 마께로 다닥다닥 물에도 강 두드리멍 옛날식으로이. 경행 빨민 질기곡, 곱곡, 감물이 그대로 잇고.(천지동, 임○은)

‘갈옷/감옷/감든옷’ 외에도 바구니나 장판, 그물 따위에 감물을 먹이는 이유도 감물을 들이며 본래보다 더욱 질겨지기 때문이다. 구술 (82)는 장판에 감물을 먹이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보자는 감물을 먹인 장판은 “뽏뽏하고 오래 가더라.”고 하였다.

(82) 옛날에는 흙땅인데 장판 영 흑면은 종이로 브르잖아. 경흑면 그 거를 감 맥이면은 뽏뽏헤지거든. 그근 그걸 질기라고 싹싹싹 막 영 싹멍 멕여 가. 게민 그 장판이 막 오래 가더라고. 경 행 허는 거 봐서.(북촌리, 백○옥)

넷째, ‘갈옷/감옷/감든옷’은 더러움이 잘 타지 않고 흠이 잘 안 붙는다. 그래서 여름에 밧일을 할 때 즐겨 입는 것이다. 흰옷을 입고 밧일을 하면 금방 더러움을 타지만 갈색 옷을 입으면 더러움을 타는 줄 모르고, 실제로 ‘감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흠이나 먼지 등이 잘 붙지 않은 이점이 있다. ‘더러움’을 제보자들은 ‘버뭍’이라고 표현하였다.

(83) 옛날 할머니부터 그 갈옷을 입으면 그 갈옷 그거이 질기고 옷에 흑도 잘 안 부뜨곡. 몸에 땀도 안 부뜨곡. 경허난 거 갈옷을 들영.(낙천리, 김○평)

(84) 갈옷 입으면 버뭍도 덜 타고, 시원하고. 원칙으론 시원해. 빨래허기도 좋고.(신평리,

이○자)

(85) 옛날 이런 티 입다근에 이거 들어주게. 게민이 일헐 때 막 이거이 하애 가지고 저 추접허잖아. 이추룩 감물 들어민이 흐끔 더럽혀도 이시네, 더러운 것이 안 나와. 쟁 따시 이거 일허민 막 땀 부떠. 요추룩 감물 들어민 슻락해정이 땀 안 부떠. 슻락해근에이 막 입구정만 헤여. 으름에, 슻락해근에, 감물 들어민 이시네, 일헐 때 무진장 좋거든. 이거 미시거 낮전도 안 입언 버물어. 이 **갈옷은 이들 입어도 안 버물어.**(법환동, 현○열)

(86) 어떤 사름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헐 땀 그거 **버물 안 타주게.** 게곡 슻락하고 덥지 안허고, 몸에 잘 부뜨지 안헐 막 시원헤여. 경허난 영 감을 들연 옛날.(덕천리, 이○숙)

다섯째, 다림질이 필요 없다. ‘갈옷/감옷/감든옷’은 말릴 때 손질을 하면 별도의 다림질이 필요 없다.

(87) **갈옷 다리미질 아년다.** 영영영 헤근에 툽툽툽 두드려근에이 곱게 나오주.(법환동, 현○열)

구술 (87)의 ‘영영영 헤근에 툽툽툽 두드려근에이’는 갈옷을 빨아서 널 때 손으로 두들기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펴서 널면 말라서도 편평해 다림질이 필요하지 않는다. 게다가 ‘갈옷’은 노동복이기 때문에 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

여섯 째, 재활용이 가능하다. ‘갈옷/감옷/감든옷’은 질기고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뛰어나다. 구술 (88)~(91)을 보면, 입다 헌 옷에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고, 감물을 들였던 옷이 풀이 죽으며 다시 감물을 들여 입는 등 재활용이 가능하였다. 처음 감물을 들일 때보다 색깔이 곱지 않은 단점은 있지만 갈옷의 용도가 노동복인 만큼 입는 데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88) 입어난 옷은 들여지는데 감 들연 입어난 건 안 고와. **처음에 헌 번 들였던 옷은 막 헐어가민 또 살릴라고 들어진 허영 입영.**(낙천리, 김○평)

(89) **입단 거 남방 이상헌 거 이시민 감물 들어민 슻락헐 막 헐 입어.** 이제 올히도 이제 여름 나민 아들 옷이영 나 옷이영 하영 감 들일 거주. 거 입단이 들랑헌 거 이상헌 티샤스도이 이시민 감물 들어민 색깔 막 이쁘고 입을 때 막 좋아.(법환동, 현○열)

(90) **입었던 옷에도 감 들연은에 입으면은 풀이 죽지 안허냐? 입어가민 자꾸 빨아 가고 무시 거 허민, 또 그거 흐끔 미치민 버지락허잖아.** 뼈닥헐게. 그추룩 헐 입는 사름은 입었어.(하천리, 강○순)

(91) **어떤 사름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헐 땀 그거 버물 안 타주게.** 게곡 슻락하고 덥지 안허고, 몸에 잘 부뜨지 안헐 막 시원헤여. 경허난 영 감을 들연 옛날.(덕천리, 이○숙)

이뿐만이 아니다. ‘갈옷’은 헐어서 옷으로 못 입게 되어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다.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을 때에 아이를 눕히는 ‘아기구덕’의 깔개로 활용하였고, 기저귀가 없을 때는 기저귀 대용으로 헌 ‘갈옷’을 이용하였다. 입다가 헌 옷 가운데 쓸 만한 부분은 ‘구덕’을 바르는 용도로 썼고, 헌옷을 가늘게 찢어서 명석이나 바를 꼬는 데도 활용하였다. 쓸모가 없을 때는 걸레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갈옷의 쓰임새는 다양하게 재활용되었다.

(92) **아기구덕에 보릿낭 담고 그 입어난 갈중의 헌 거 툽 디리청 더깁 왕이자랑, 왕이자랑. 그걸 무**

사 버려. 아기 또고망에 똥 기저귀로 써야지.(명월리, 강○자, 장○선)

(93) 그 기저귀가 그땐 엇으난에 저 보릿냥, 구덕에 보릿냥 갈아난 다음에 이제 이 갈옷 헌 걸로 헤 가지고 그레 영 뇌근에 이제 한 번 오줌 싼 건 내불고. 똥 싸민 흐뎡 영 막 굿 이민 버리고 경허영 막 그 감옷을 엇으민 안 쉐 거주기게. 경헨 살앗어.(광령리, 박복선)

(94) **갈옷 혈른 이걸루 이제 아기 지성귀 해낫주게. 조름 대영.**(수원리, 김○춘)

(95) 아기를 막 이디 오줌 싸카부덴 헌 옷으로 샷바. 이제는 샷바가 잇어 가지고 **그땐 샷바가 없어. 갈중의 헌 걸로도 우리는 그렇게 행 키웠어.** 아기는 하영 나난 그렇게 행 키웠어.(북촌리, 백○옥)

(96) **옛날 이시네 갈옷 혈른 이시네 그걸 브러근에 또 따른 옷 주웁 입곡. 헌 거 던져 불지 안해서 걸로 걸레도 허고.** 그걸로 문 방 다끄곡, 발 다끄곡 걸로이 문 경헨어.(법환동, 현○열)

(97) **브른구덕은 거 갈적삼이나 갈정병이나 입어근에 막 또고망도 터진 거 입을 나위 엇 인 거. 굿인 디로 둘러근에 풀 맥여근에 구덕에라도 불랑 쓰젠.** 옛날엔 천도 엇이난 경허근 에 갈주력으로 그 구덕을 불르난에 거 데껴 부는 쉐으로 구덕 불르는 거주.(신흥2리, 김○생)

이상과 같이 ‘갈옷/감옷/감든옷’은 땀이 붙지 않아 시원하고, 질기고, 감물이 들어 옷감이 뽀뽀해 비 날씨에나 장마 때도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또한 더러움이 덜 타고, 손질이 쉬운 이점이 있는 옷이다. 또한 입었던 옷에 감물을 들여서 입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감물을 들였던 옷에 다시 감물을 들여서 입을 수도 있어 그 효용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헌 옷은 아이들의 기저귀로, 걸레로, 바를 풀 때, 바구니를 바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갈옷/감옷/감든옷’이 이렇게 대를 이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옷이라는 점과 활용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2.3.3. 옷에 대한 느낌과 표현

‘갈옷/감옷/감든옷’의 특성과 효용성은 갈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과 감촉의 다양한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건드럽다’, ‘바지락허다’, ‘뽀뽀허다’, ‘사락허다’, ‘스락허다’, ‘슬그랑허다’, ‘슬캉허다’와 같은 느낌과 감촉의 표현들은 표준어로는 대역할 수 없는, 희귀하고 독특한 제주어다. 이렇듯, ‘갈옷/감옷/감든옷’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은 제주 갈옷을 만들고 입었던 제주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만들어낸 또다른 무형의 자산이다. <표 4>는 제보자들의 구술 속에 나타난 느낌이나 감촉과 관련한 표현들이다.

<표 4> ‘감옷’ 느낌 및 감촉 표현

연번	표현	구술 내용	지역
1	건드럽다	여름엔 갈옷 입으민 막 건드럽주게.	일과1리
		일허레 가젠 허민 갈옷 입으민 막 건드럽주게.	일과1리
		시렁목이엔 들이난 그땐 바드락헨 곱곡 건드럽곡 잘도 좋안게이.	천지동
2	바드락허다	시렁목이엔 들이난 그땐 바드락헨 곱곡 건드럽곡 잘도 좋안게이.	천지동
3	바지락허다	감옷 닥닥 털영만 행 바짝헨 양 입어가민 수그러져. 처음은 바짝해도 나중 에라 가민 수그러져. 바지락헨 게 좋지. 너무 바짝하면 굿고게. 굿어정.	낙천리
4	바짝허다	감옷 닥닥 털영만 행 바짝헨 양 입어가민 수그러져.	낙천리
5	뽀뽀허다	감 들이민 뽀뽀허주게. 물 적지명 툴류와 가민.	화북2동
6	뽀작허다	감들이면은 좀 뽀작허주게. 경허민 슬드레 안 부트니깐 이 감옷을 입기 시 작헤 가지고	오조리

7	사락사락사락	감옷은 노동일을 태우니까 사락사락사락.	화북2동
8	사락사락허다	감옷은 막 사락사락허주게. 땀 안 부며.	삼양2동
		갈옷 입으면 사락사락허 부난 몸에 부뜨지 안허난 막 시원행 좋나게.	신흥2리
9	사락허다	(갈몸뻬) 막 사락허여근에 살 부뜨지 아녀니깐 그것만 입어.	용수리
10	산도룩허다	갈옷은 몸에 부뜨지 안허고 입을수록 산도룩헤, 여름에도 완전 좋아.	신평리
11	살그랑허다	저 밧디 텅길 때 입으면, 밧디 텅길 땐 땀 안 부며 살그랑행 좋주게.	금성리
12	술각술각허다	새 갈옷 입을 때 그것만 입으면 술각술각행 7려운 거 굵어진 거뿐이주.	천지동
13	스락지다	갈옷은 입으면 스택저	와산리
14	스락허다	땀 부뜨지 말앙 스택허게 입젠	삼양2동
15		갈옷 맨들앙 장마에도 그거 입으면 몸이 스택헤근에, 칙칙허지 안	신평리
16		헤. 게난 계속 만들어 입엇지.	
17		여름에 웨 감옷을 주로 입느냐 허민 땀이 안 부며 가지고 스택헨에 그 감옷을 입는 거.	법환리
18	스락허다	일허명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서 땀도 안 부며 스택허고 경헌다게.	신흥2리
		어떤 사름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헨 땀 그거 버뭍 안 타주게. 게곡 스택허고 텅지 안허고. 몸에 잘 부뜨지 안행 막 시원헤여. 경허난 영감을 들연, 옛날.	덕천리
19	술그락허다	게민 감물 들이민 술그락허다 이거라. 술그락허여 땀 안 부며. 게민 일헨 때 입곡.	법환리
20	술그랑허다	갈옷 땀 안베어근에 술그랑헤여 좋주게.(사계리)	사계리
		갈옷을 웨 일헨 때만 그거 입냐면은 것이 땀이 잘 안 부며게. 술그랑허여.	용수리
21	술크랑허다	감물 들연은 그것이 술크랑행. 감이 흐슬 풀이 뻗뻗행 썬는 생이라.	금성리

〈표 4〉의 표현 가운데 ‘건드럽다’와 ‘산도룩허다’는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말이고, ‘바드락허다’, ‘바지락허다’, ‘바짝허다’, ‘뻗뻗허다’, ‘뻗작허다’는 감물을 들인 옷감을 만졌을 때의 느낌, 그리고 ‘사락사락허다’, ‘사락허다’, ‘상그랑허다’, ‘술각술각허다’, ‘스락지다’, ‘스락허다’, ‘술그랑허다’ 따위는 ‘감옷’을 입었을 때 몸에 닿는 감촉과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갈옷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과 어휘들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2.4. 착용 환경

2.4.1. 일터

‘갈옷/감옷/감든옷’은 앞의 ‘2.3 갈옷에 대한 인식’ ‘2.3.1. 옷에 대한 생각’에서 다뤘듯이 밭일, 목장일 등 일터에서 주로 일복으로 입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2.4.2. 첫 착용 시기

제주에서 ‘갈옷/감옷/감든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는 언제일까?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것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의 ‘갈옷/감옷/감든옷’은 화산섬 제주 환경이 만들어 낸 제주 특유의 옷으로 누대에 걸쳐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보자들이 ‘갈옷/감옷/감든옷’을 처음 입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구술 (98)의 “아이 들사 무신 갈옷을 입어게.”, 구술 (99)의 “저 갈중의 7튼 건 그냥 일헐 때만 입어.”, 구술 (102)의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뒷산디 모르고 씨집오란에 촌에 오란 일허멍 살젠 허난”이라는 구술에서처럼 제보자 대부분은 어렸을 때는 ‘갈옷/감옷/감든옷’을 입지 않고 시집와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복으로 입었다는 것이다.

(98) **아이들사 무신 갈옷을 입어게.** 어려와도 광목옷이 미녕이나들 그냥 것들.(화북2동, 백○성)

(99) **저 갈중의 7튼 건 그냥 일헐 때만 입어. 애기 옷도 출려진 사람 물들여근에 뚝나지 못허게.** 뚝 나민 그 두드레기 낭은에 못 헌덴 경헝 입영 땡겨주게. 이제도 뭘 방법으로 입지. 으름 때에.(용수리, 양○월)

(100) **갈옷은 하여튼 아인 땀 안 입고 결혼헝 오란에 혼 서른 넘어서 입어저살 거라.** 서른 넘어서. 겐디 우리 어린 때도 어머니네 감옷 헝 입엇주게. 어머니넌 아버지넌 갈옷 헝 입엇주. 일헐 때 갈옷을 헝 입으니가. 인제는 갈옷덜 중간에 그냥 일 안 허는 사름도 막 입엇는디 그 당시에는 일복이라고 일 헐 때만 입엇주게.(일과1리, 이○희)

(101) **우리 그냥 흙 어렸을 때부터 그 감물덜은 헝에 입어세게,** 경허난. 저 그때는이 치마도 만들언 쥘났어. 감물 헤여근영에 이런 저 광목 자치덜 잇이면 그런 거 헤여근영에 버물지 아녀곡. 그건 흙곰 감물 들이면 곤다게. 빨강허영이. 경헝에 그거 입어났저만은.(일과1리, 고○자)

(102)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뒷산디 모르고 씨집오란에 촌에 오란 일 허멍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서 뚝도 안 부땀 스락허고 경헌다게.** 경헝 그자 갈옷 입영. 다 늙도 다 갈옷 입언.(신흥2리, 김○생)

그러나 대정읍 일과1리 고○자는 어렸을 때도 갈옷을 입었다고 구술하여 집안 형편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감물 들인 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술 (99)의 용수리 양○월은 “두드레기 나지 못허게” 방법으로 여름 때에 감물을 들인 옷을 입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갈옷/감옷/감든옷’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한 것은 밭일 등 일할 나이가 되는 성년 때이거나 결혼한 이후라고 응답하였다. ‘갈옷·감옷·감든옷’이 일복이었기 때문이다.

2.4.3. 계절

‘갈옷/감옷/감든옷’은 주로 여름에 입는 옷이다. 감물을 들일 수 있는 ‘풀감’이 나오는 시기도 여름이고, 물을 들일 수 있는 옷감이 얇아야 하니 여름철이 제격이다. ‘갈옷/감옷/감든옷’은 주로 ‘미녕’이나 광목을 이용하여 ‘갈중의’와 ‘갈적삼’을 만들어 입었다. 더위를 쫓기 위하여 베로 만든 적삼이나 등거리에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103) 옛날에 **보리 헐 때 이 갈옷이 꿩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구마줄로 논 때 이것도 꿩고야.** 이 건 여름에 땀이 안 부땀. 밭디 강 검질멜 때, 검질 멜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헝 땀을 안 부땀.(삼도 2동, 강○자)

(104) 겨난 일헐 때는 무조건 입지게. 그냥 여름에 일헐 때. 봄?을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겨울엔 안 입곡게. 겨울엔 갈옷 입으면 뽀뽀헐, 뚝지도 안헐고.(일과1리, 이○희)

(105) 감물은 들인 건 얼어. 저 딱딱해근에 천에 고망이 나고 이건 여름에 입는 겨난. 감물은 사락사락하게 들이는 겨난. 겨난 겨울엔 복삭해살 겨난 겨울옷은 감옷이 엇고 감옷은 여름에. 여름에 뚝날 때 영헐고 입으면 실그랑허주. 경허민 뚝도 썰어지곡 뻗디 강 일헐고 허는 것가 감옷이주.(신흥2리, 김○생)

(103)의 예처럼 여름철 ‘보리 헐 때, 고구마 즐기 놓을 때, 검질멜 때’ 입으면 좋은 옷이다. 제보자들이 젊었을 때는 옷이 그다지 흔하지 않을 때여서 구술 (104)에서처럼 여름철은 물론이고 봄가을에도 발일을 할 때는 ‘갈옷/감옷/감든옷’을 입었다. 구술 (105)의 “감물을 들인 건 얼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감물을 들인 옷을 입으며 춥다. ‘감즙’이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여름철 일복에 감물을 들이면 몸에 땀이 차지 않고 시원해서 즐겨 입은 것이다. 일종의 기능성 옷인 셈이다.

2.4.4. 차이

2.4.4.1. 여자)남자

‘갈옷/감옷/감든옷’ 가운데 일복으로 주로 입는 옷은 ‘갈중의’와 ‘갈굴중의’, ‘갈몸빼’다. ‘갈옷/감옷/감든옷’은 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입었다. 제보자들이 일할 때 입는 옷 가운데 남자는 ‘갈중의’, 여자는 ‘갈몸빼’를 주로 입었다.

(106) 남자가 많이 입긴 헐디 남잔 큰일을 많이 허잖아. 뻗 갈 때 조 불릴 때, 이제 수확헐 때, 그런 때 남자가 헐고 이 앓앙 허는 일은 여자가 대부분 많이 헐어. (겨난 여자가 감옷을 더 하영 입엇저.) 예.(삼양2동, 강○향)

(107) 갈옷 주로 여자가 많이 입엇지. 검질 멜 때. 남자덜은 뻗 갈 때, 출 벨 때. 우에 거는 에리 엇인 거 갈적삼으로 헐고 아래는 남자들 갈중의 이렇게 묶으는 거 그거 입고.(애월리, 양○자, 양○자)

(108) 남자도 여자도 남자가 하영 입젠 허지만은 여자도 하영 입엇지. 옛날 할망덜은. 난 우잇 건 안 입어. 아랫 것만 입어.(낙천리, 김○평)

(109) 갈몸빼 헐 스물댓부터 입어난 거 닳은디. 어릴 때는 안 입어난. 어른덜 입은 것만 알주. 어른덜은 다 감 들연 입어. 할머니덜.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뉘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헐 치마로 해영 만들안 입는 거 테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옷 안 입어뻗어. 일헐 땀 이걸로 입연.(덕천리, 이○숙)

(110) 나가 어릴 때게 저 시흥리서 많이 입엇주. 커낭은 이제도 감몸빼는 입주만은 남저 어른은 농서도 안 지고 그냥 땡기는 사람이라 부난 감옷을 잘 안 입엇주. 여저 입는 것이 감몸빼난 여자가 많이 입는 거 닳아.(월정리, 현○래)

(111) 장 나민이 하얀 몸빼 광목몸빼 막 테외징 입나게. 이제도 그리고 난 세 개나 메왕 이디 잇저. 올히 감 들일 거. (법환동, 현○열)

‘갈옷/감옷/감든옷’은 여름철 발일 등에 주로 입었던 옷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입었으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입었다. 이는 여자들이 ‘앓아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성들은 일복으로 ‘갈몸빼/감몸빼’를 많이 입는다. 또한 제주의 장례 풍속 중에 상주들이 여성 친족들에게 복으로 나눠주는 ‘광목몸빼’가 ‘갈몸빼/감몸빼’를 많이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구술

(111)에서처럼 이 ‘광목뽀뽀’를 장례 이후에 일복 등으로 입기 위하여 감물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2.4.4.2. 중산간 마을>해안 마을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은 어떤가? 중산간 마을 해안에서 바라볼 때 ‘웃드르’ 마을에 해당한다. ‘웃드르 마을’은 해안 마을보다 감나무를 많이 심었다. 또한 ‘웃드르’마을은 해안 마을보다 밭 일이나 목장일 등 굶은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감옷’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 울안이 넓은 집은 감나무를 거의 심었고, 감이 없는 지역이나 사람들은 이웃에게 감을 빌려 쓰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감을 사다 감물을 들였다.

(112) 저 웃드리레 그레가 감이 많이 나고, 감남도 많고게. 웃드리가. 이디도 웃동네광 알동네 차이 잇는다.(금성리, 양○자)

(113) 어디 나갈 때엔 쏘곱에 뽀뽀 입곡 치마를 이렇게 입어이. 이렇게 입영 이 앞이 이레 무경 경허연 탕견게. 고산은 경 안 헤신디. 아메도 웃드르라. 이디 하영 입지. 남자도 여자도. 남자가 하영 입젠 허지만은 여자가 하영 입었지.(낙천리, 김○평)

(114)감물 들이는 건 훈 장 웃었지. 그땐 웃영 못 입었지. 감물 들이는 건 이제도 그거 입어, 이제도 우리 어무니 친정엔, 한원리 동네가 옛날엔 웃드르라. 그디만 가문 감이고 뵈이고 막 들여, 그딘. 이딘 어류와.<용수리, 양○월>

(115) 우리 웃드르라부난 게난 감옷만 입영 살았어. 신산이에서는이 감옷을 그때는 우리 결혼할 고지에, 그 삼십 세까지 많이 안 헛어. 거기는 아메도 개춘이라고 고성은 양춘이주. 거난 조금 웃드르 식으로 허난 수산이나 감옷을 많이 입는다 신산 이짜드레 그 감옷을 막 심허게 입진 안헛어.(고성리, 이○자)

(116) 나 어릴 때 나 수산리라 부난 입어봤저. 웃드르허고 해변허고 입은 그 의상 차이가 좀 잇었주게. 그땐 이런 해변인 예를 들면은 막 원피스 같은 거 막 입었주만은 웃드르 사람덜은 이 옛날 옷을 늦게까지 입었어. 우리 웃드르라부난 감옷만 입영 살았어.(고성리, 강○춘)

이런 평가는 해안 마을에 살다가 중산간 마을로 시집을 가거나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시집간 제보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구술 (112)는 한 마을 안에서 바다 쪽과 산 쪽이 감나무 환경이 다른 경우이고, 구술 (113)~(116)은 생활 터전이 해안 마을에서 중산간 마을로,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바뀐 제보자들의 구술이다. 이들의 구술을 통해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에서보다 ‘갈옷/감옷/감든옷’을 더 많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2.4.4.3. 아래웃>윗옷

제보자들은 남자는 ‘갈중의’나 ‘갈정뽀이’, 여자는 ‘갈굴중의’와 ‘갈뽀뽀’를 주로 만들어 입었다. 제보자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뽀뽀’보다는 ‘굴중의’에 물을 들여 입었다. 윗옷으로는 적삼이나 입던 셔츠 등에 감물을 들여서 입기도 하였다. 옷감의 소재는 주로 ‘미녕’이나 광목이었다. 일복이 아닌 경우에는 ‘베’나 ‘모시’, 소창 등에 물을 들인 후에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감옷’은 윗옷보다 아래옷에 더 많이 물들여 입었다.

2.5. 유의할 점

‘갈옷/감옷/감든옷’은 보관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감이 물에 약하고 잘 썩는 성질이 있어 감물을 들일 때도 유의해야 하지만 물들인 이후에도 세탁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감물을 들인 옷은 불그스름한 갈색을 띤다. 감물을 들인 후 햇볕에 잘 말리면서 바래야 색깔이 곱다. 그러나 물들여서 말리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갈색을 띠어야 할 옷이 거무스레하게 변한다. 갈옷을 입고 땀이 뻘 채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겨 거메지는 것도 갈옷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젖었을 때는 빨리 말려주는 게 상책이다.

(117) 그 갈옷은게 그 일복으로 나온 거난 일헤 나민이 막 고왓당이라도 일헤근에 뚝 나나민 거멍헤 불어. 거멍헝 곱지 안허여. 게난 그냥 일허지 안허영 그냥 고양 입는 딘 곱는디 일 강 흐루이틀 헤 나민 뚝 나극 헤 나민 뽏민 더 거멍헤 분다. 저 감옷 입어근에 비 맞아근에 어디 흐썰 싯당 자게 안 뽏앙 내 불민 것도 거멍헤 불고. 게난 감옷은 그냥 비 안 맞아 그냥 고양 입는 거민 그 색이 ?만 잇주만은 일헤낭 뚝 나고 경 뽏아 가민 곱지 안헌다게.(일과1리, 이○희)

(118) 갈중의 이추룩 거뭇거뭇헤지지. 잘 아니 감 들어질 경우에 그추룩 허주게. 이 감옷이 썩어 비영. 그 잘 발레지 아녀면 썩어 비어. 무레 비영. 감이 들이민, 성헌 때 헤영 자꾸 발레고, 자꾸 널어 사 뽏개지지. 이거 자꾸 안 발레민 이축 썩어 비어근에이 무레 비어 게난 뱃 안 날 땀 허지 말아사. (법환동, 현○열)

세탁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구술 (119)를 보면, 예전에는 갈옷은 쌀뜨물이나 오줌으로 빨고 그늘에 말렸다고 한다. 쌀뜨물과 오줌으로 피는 것은 옷의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누로 빨아서 별이 나는 데 널면 색깔이 검어진다고 하였다.

(119) 갈옷 비누로 뽏앙은 안 뉘어. 그냥 옛날엔 그 쌀뜨물로 이렇게 담가서, 또 옛날은 막 못사난 오줌으로 뽏았어. 우리가 싯 오줌으로 요걸 뽏았어. 워나면은 색을 안 변하게. 이거 그냥 (물에) 담가다가 비누로 뽏아서 이렇게 뱃 난 디 널면 새카맣헤 불어. 이게 그렇게 까다론 옷이야. 처음 헤근에 감물 헤연 발렐 때는 뱃디 널어야 뉘어.(삼도2동, 강○자)

(120) 마개로 닥닥 두드렁은에 그냥 비누칠도 안 헤여. 비누 경 서서게. 무슨 양젯물 비누여 벌경헌 것덜 나오극 거세기난 그냥 마개로 닥닥 큰이물에 강은에 물 찰찰허는 디 영 영 헤왕 잘강잘강허당 마개로 팡팡 두드렁 헤와당은에 그냥 또 옷디 탁탁 걸쳤당 몰르민 슬강허게 입극 허주.(금성리, 이○자)

(121) 처음에 감들여근에 영 바래여 가민 벌경헤 불어. 경헤 세제 낭 세탁기에 돌려 불민 검영헤 불어. 세제 때문에 검영헤지는 거. 경헌디 그놈의 세제가 나쁘긴 나빠. 그 잘 곱게 입는 사람들은 그 세제로 안 뽏앙 그냥 저 울삼푸 같은 걸로 뽏주게. 곱게 입젠 허면. 옛날엔 그냥 저 비누로만 뽏나 손으로만 영. 거고 감옷은 막 그 하얀색이나 무슨 색이 아니난 손으로만 주물러 뽏아도, 뚝만 시쳐도 입엇어.(신평리, 이○자)

(122) 감옷은 흐끔 이 저 뵈고, 스파크엔 막 헤여 불면 자게 벗어. 나 헤여 보난 안 뉘크라라. 물에 헤여근에 비누 헤영 살살 그자 비누로. 세탁기에 헤 불른 허영허여 분다.(일과1리, 고○자)

(123) 갈옷은 간단하게 그냥 뽏아서 입을 수 잇는 옷이고, 비누고 뉘고 막 헤서 그렇게 안 헤도 뉘니까. 물로만 싯 뽏아서 이렇게 말려도 뉘는 옷이니까.(감산리, 김○한)

(124) 그 감 들어진 건 질기곡. 감 아이 들인디 여러주게, 풀 아녀곡 행 입는 거난에. 그 감은 죽도 풀 아녀근에 그자 허민 감옷은 세탁기 들영 빨아볼민 풀 저분다. 거면 뿔 수 시민 손으로 빨곡, 비누 맥이지 말앙이. 비누 맥이지 말앙 기냥 빨아사. 게민 막 뚝내 삭삭 나민 그냥 오랑 마께로 다닥다닥 물에도 강 두드리멍 옛날식으로이. 경행 빨민 질기곡, 곱곡, 감물이 그대로 잇고(천지동, 임○은)

(125) 감옷 처음에 빨기 전에 처음엔 곱게 입어야 뉘어. 경 때 정 세제 낵 빨앙 입으민 안 뉘어. 곱게 입엇당 멧 번 빨아냥 흐끔 풀 죽은 다음에 탄 거영 놔도 허주. 그냥 그것만 아무걸 허여도 그것만 허영 손빨래로 헤사 뉘어.(덕천리, 이○숙)

구술 (120)과 (123), (125)에서 보듯이 ‘갈옷/감옷/감든옷’을 빨 때는 “마께로 다닥 두드령은에 비누칠도 안 헤여”, “물로만 싹 빨아서 이렇게 말려도 뉘는 옷이니까”, “세제 낵 빨앙 입으민 안 뉘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갈옷’은 맹물에 빨아서 마르면 입었다. 또한 감물을 들인 옷이기에 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세제를 이용하여 빨면 색깔이 빨리 벗는가 하면 거메진다고 하였다. 곱게 입는 옷은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빨고 있다.

3. 시사점

이상에서와 같이 ‘갈옷/감옷/감든옷’이 예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갈옷’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 있다. 특히 ‘갈옷/감옷/감든옷’은 생활환경과 인문·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노동복에서 일상복, 외출복, 특별복(무대 의상)으로 계승, 발전하고 있다. 이는 ‘갈옷’ 전승이 제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사회 환경이 밀거름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복으로 시작된 감물 염색이 시대 변화와 유행에 따라 다양한 옷가지로 개발되고 ‘감물 염색’ 제품이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개발되면서 갈옷의 가치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갈옷’의 효용성 등은 감물을 들일 재료인 감만 있으면 작은 노력으로도 다양하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갈옷’과 ‘감물염색’이 제주의 미래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갈옷’의 명칭은 지역과 구술자에 따라서 ‘갈옷’이 ‘감옷’과 ‘감든옷’으로도 다양하게 불린다. 이들 명칭 가운데 제보자들은 ‘감옷’ 명칭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또한 ‘갈옷/감옷/감든옷’의 옷의 명칭을 통해 ‘갈, 감’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었다. ‘갈’과 ‘감’은 옷의 재료인 열매의 의미가 아니라 염료인 ‘감물’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 들인다’, ‘갈 들인다’, ‘감 맥인다’는 표현 속에서 확인된다.

둘째, 제주의 갈옷 종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있다. 남자들이 주로 입는 ‘갈중의’를 남원읍 지역에서는 ‘갈점벙이/갈점벙이’로 불리고, 이 지역의 ‘갈중의’는 ‘갈굴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갈옷에 대한 생각, 선호하는 이유, 갈옷의 효용성 등 갈옷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갈옷’의 느낌과 촉감에 따른 어휘를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산도록허다’, ‘슬그랑허

다, '사락사락하다'는 다양한 표현은 갈옷 문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제주의 무형자산이다.

넷째, 갈옷의 첫 착용 시기와 성별과 지역에 따른 갈옷 착용 상황과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갈옷의 첫 착용 시점은 밭일 등을 할 수 있는 성년기나 결혼 이후가 대부분이었다. 갈옷은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입었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갈옷을 더 많이 입고 있었다.

다섯째, 갈옷을 관리하거나 세탁할 때의 유의점도 살펴보았다. 갈옷은 쉽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서 젖었을 때는 빨리 말려 주어야 하고, 세제를 사용해서 빨거나 젖으면 거메지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 갈옷 문화는 제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제주 전통 문화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유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갈옷의 가치와 효용성을 다른 분야까지 확장하여, 제주의 감물 염색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